

# 성과 포장에 가려진 '스타기업'의 민낯

### 도-TP, 성장유망 기업 9곳 '제주 스타기업' 선정·지원 일부 매출총이익 줄고 퇴사자 늘어 道 성과 홍보 무색 올해도 지원사업 추진 예정... "성과분석 면밀히 해야"

제주특별자치도와 (재)제주테크노파크(제주TP)가 제주 스타기업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으나 일부 기업인 경우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와 (재)제주테크노파크는 지난해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성장 잠재력이 높고 일자리 창출 등을 견인할 성장유망 우수기업 9개사((주)두레·(주)보타리에너지·(주)아인스에스엔씨·(주)제주사랑농수산·(주)씨에스·(주)한국비엠티아·한국에너지 종합기술(주)·(주)휴림·(주)제주패스)을 '제주 스타기업'으로 선정했다.

이들 스타기업들은 기술사업화, R&D, 정책자금 등을 맞춤형 패키지로 지원을 받았다. 2018년 지원예산은 총 10억원으로 사업화 지원비를 기업당 5000만원 내외, 홍보동영상 제작, 해외전시회 참가 등 수출성공패키지 사업을 기업당 최대 3000만원을 지원했다. 2019년도에는 상용화R&D 연 3억원(2년)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기업은행에서 스타기업에 우대(최대 1%p) 금리 혜택을 줬다.

제주도는 지난해 스타기업 9개사의 매출(1495억2700만원→1519억3,500만원, 1.6% 증가)과 수출(18억4800만원→18억5500만원, 0.4% 증가), 고용(438명→481명, 9.8% 증가)이 증가하는 등의 성과를 보였다. 이는 분석을 지난 4월 내놓았다.

하지만 취재 결과 지난해 스타기업으로 선정된 A사의 2018년 매출액은 전년과 비슷한 456억을 기록했으나 매출원가율이 전년 대비 8.5% 증가해 매출총이익이 전년 대비 36억원이 감소했다. 특히 판매수수료 등의 증가에 따라 판매관리비가 전년 대비 10.8% 증가해 2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B사의 경우 입사자 수는 감소하고 퇴사자 수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올해 이들 스타기업에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2019년도 지역기업 혁신성장(이하 R&D)'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보다 면밀한 성과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종 확정된 스타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약을 통해 과제 추진을 위한 사업비(1년 간 연 3억원 이내)를 지원받는다. 올해 R&D 지원 사업에는 총 319억원(국비 291억원, 지방비 27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제주에는 국비 21억8500만원이 배정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기업들의 매출액만 파악했고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아 보지 못했다"면서 "세밀한 부문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아 봐야 한다"고 말했다. <br>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제주도의회와 서울시의회는 13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방분권 강화 및 보건복지 분야 의정활동 협력 증진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 보건복지 정책과제 개발에 한뜻

### 제주도의회-서울시의회 협력 증진 위한 업무협약

제주특별자치도의회(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13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의회(보건복지위원회)와 지방분권 강화 및 보건복지 분야 의정활동 협력 증진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제주도의회는 서울시와 제주도가 타 시·도보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펼치고 있어 양 도시 간 교류 활성화와 의정발전 및 미래지향적인 상호 협력을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앞으로 지방분권 강화와 보건복지 분야 의정활동 협력 증진을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분권 강화 >도시 현안 해결 공동협력 >보건복지 분야 정책과제 개발 >대 정부 및 정치권 공동건의 >조례안 공동발의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김대석 의장은 협약식 인사말을 통해 "제주와 서울시 간에 지방분권 강화에 협력하고, 보건복지 분야 정책과제 개발에 긴밀히 연대해 나간다면 두 도시간의 의정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져 양 지역 상호발전이 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고대순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과 김해련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양 의회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 15명과 제주도의회 및 서울시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br>표성준기자

진을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분권 강화 >도시 현안 해결 공동협력 >보건복지 분야 정책과제 개발 >대 정부 및 정치권 공동건의 >조례안 공동발의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김대석 의장은 협약식 인사말을 통해 "제주와 서울시 간에 지방분권 강화에 협력하고, 보건복지 분야 정책과제 개발에 긴밀히 연대해 나간다면 두 도시간의 의정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져 양 지역 상호발전이 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고대순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과 김해련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양 의회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 15명과 제주도의회 및 서울시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br>표성준기자

## "뻥한 축제? 왕벚꽃축제만의 색 살려야"

### 제주시 주최 평가 보고회서 차별화된 프로그램 발굴 등 축제 활성화 위한 과제 제시

제주왕벚꽃축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왕벚꽃을 소재로 한 스토리텔링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발굴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제주시는 지난 10일 오후 4시 제주시 삼도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축제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8회 제주왕벚꽃축제 평가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축제 평가를 담당한 제주문화관광평가연구소는 분석결과 관람객 만족도 조사가 7점 만점에 5.10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 축제 방문객은 지난해 대비 약 6000명 증가한 총 31만1300명으로 이중 관광객은

전체 방문객의 25%인 7만8447명으로 집계됐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도심에서 축제장으로의 접근성과 주차 문제, 벚꽃을 테마로 한 다양하고 차별화된 축제프로그램과 먹거리 부족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향후 축제 발전을 위해서는 주차장 및 화장실 등 축제장 기반시설의 정비 및 보강과 스토리텔링, 기념품 및 전시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 도입, 벚꽃거리와 인근지역을 연계한 체류형 패키지 상품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평가 보고회에서 나온 문제점과 개선의견을 토대로 해결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 나감으로써 제주왕벚꽃축제를 전국적인 축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br>이윤형기자 yhle@ihalla.com

## 17일 '부모 성교육' 특강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시청 별관 2층 문화강좌실에서 부모 성교육 멘토 김소영 소장 초청 무료 특강을 개최한다.

강연은 김소영 소장 함께 '돌직구 부모 성교육'이라는 주제로 이뤄지며, 당일 선착순 지역내 부모 2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김 소장은 미래에이치원(HRD) 평생교육원 소장으로, 국제상담심리협회 회장을 역임하고 자유학기제 교육부 부모 소통강사, 독한엄마 성교육 전담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문의=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760-3965). <br>이태윤기자

## 한식디저트 만들기 교육

제주도농업기술원 제주농업기술센터는 한식디저트에 관심 있는 도민을 대상으로 '한식디저트 만들기' 교육생 3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교육은 오는 5월 30일 오후 2시 개강식을 시작으로 7월 4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 5회 과정으로 운영된다. 가정에서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한식디저트를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제주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팀(760-7722)으로 문의하면 된다. <br>표성준기자

## 수년째 '공사 중'... 통행 불편 언제까지

### 성산 신양리 마을안길 구간 확포장공사 4년째 지지부진 곳곳에 공사자재 방치되고 인도 등 없어 안전사고 우려 시 "올해까지 공사 마무리"

서귀포시 성산을 신양리의 도시계획도로로 확포장 공사가 수년째 이어지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더욱이 공사에 쓰이는 자재들이 도로 한편에 가림막도 없이 적치된 뒤 방치되고 있어 미관 저해와 안전상의 문제도 우려되고 있다.

13일 성산일출봉과 섭지코지를 잇는 서귀포시 성산을 신양리 마을 안길도로 곳곳에는 도로공사 자재들이 쌓여 있었다. 또한 도로 포장에 일부만 이뤄져 있는 탓에 노면 상태가 고르지 않아 차량 운전이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도로에는 차선과 횡단보도, 인도 등도 조성돼 있지 않아 안전사고가 우려됐다.

주민들은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공사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토로했다.

주민 김모(63)씨는 "도시계획도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교통 체계도 잡히지 않은 도로를 주민들이 이용하



서귀포시 성산을 신양리 마을안길에서 도시계획도로로 확포장 공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도로에 차선과 횡단보도, 인도 등이 조성돼 있지 않아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br>이태윤기자

며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또한 도로 공사에 쓰이는 공사 자재들 또한 도로 곳곳에 쌓인 뒤 방치되면서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는 최근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조만간 공사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귀포시에 따르면 시는 예산 40억원(공사 18억 보상 22억)을 투입해 해당 구간에서 성산지구 도시계획도로 중로1-4-1호선 확포장 공사를 지난 2016년 3월 착공했다.

이후 토지보상 협의와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공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사는 한동안 중단돼 왔다. 그러던 중 3월 20일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공사를 재개, 오는 10월 말까지 해당 도시계획도로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최근 토지보상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재개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r>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 진정한 흙의 보약 "페르카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수입)

한번의 시비로 비료와 흙과 수분반응에 의한 농약성분 뿌리혹병, 잡초경감, 균핵병, 회색곰팡이병, 흑색썩음균핵병, 역병, 모질룩병, 시들음병, 달팽이사멸, 각따귀, 날파리류, 곰팡이병살균, 방제

**페르카의 제반효과**

- 완효적 질소비 효과
- 석회효과
- 토양곰팡이 살균 방제효과
- 선충 밀도의 저하
- 잡초의 경감
- 가축의 기생충 방제
- 토양소독 효과
- 가축의 기생충 방제
- 토양 미생물 활성화
- 유기물의 부숙 촉진
- 토양의 비옥화

**사용 기준** 25K - 1포 (100~400평)사용 <br> **점급 품목** 4중복비, 유기질비료(친환경제품), 1등급가공발효계분퇴비, 유향비료 <br> **관주 연면 시비용** 맥반석, 게르마늄, 황금수, 흙향기

직원구함 **비료판매 유 경험자 년 4천이상 보장, PC가능자**

###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조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745-8900, H.P: 010-9258-7508

## Gen Tec Parasol 고정식 접히는 파라솔 다양한 사이즈 5m / 4m / 3.5m / 3m

**안전성 확보** 제조사에서 직접 배선설치부터 A/S까지 특화된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 원치않는 와이어가 끊어져도 파라솔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고리가 있습니다.
- 플레이트 커버가 있어 잘못 밟아 다치는 위험을 예방하고 튀어나온 볼트를 가려 주었습니다.
- 누구나 파라솔을 펼치고 접을 수 있으며, 안전 커버를 별도로 준비 하였습니다.

대형파라솔 설치 및 A/S 문의전화 <br> **젠텍 제주지사: 064)724-0991** <br> **핸드폰: 010-3639-0050**

## 방수

- 폴리우레아방수 -

- ◆ 지붕, 옥상 방수 및 도장공사
- ◆ 축사, 냉동창고, 양식장, 수영장 방수
- ◆ 저수조, 하수처리장 내·외벽 방수
- ◆ 물탱크, 원유저장탱크, 주유소 바닥 코팅
- ◆ 수도관, 가스관 등 각종 관강 코팅
- ◆ 철재 부식 코팅, 아파트 주차장 바닥
- ◆ 산업용시설물, 발전소, 학교, 관공서 옥상
- ◆ 구조물의 모든 부위 방수, 콘크리트 부식 방지
- ◆ SMC, FRP 물탱크 제작, 수리

**A/S기간: 3년 보장**

**주식회사 내소날건업**  
내 소 날 FRP 페인 트 총 판 <br> - 방수, 도장 전문건설업, 여성기업 -

TEL: 064-727-9800 H.P: 010-3699-4850 <br> FAX: 064-753-8850 010-3211-0218 <br> national90@naver.com